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롬 15:13)
<https://www.fgtv.com> 1958년 5월 18일 창립 (설립자 조용기 목사) 통권 제68권 2호

주보

2025. 1. 12.

위임목사 **이영훈**
(Senior Pastor Rev. Younghoon Lee)
부 목 사 **양승호**(목회) **백근배**(교무) **고영웅**(개척)

◆ 2025 표어 ◆
오직 말씀으로

◆ 2025 교회목표 ◆

1.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2.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3.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기독교대한인본의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주일에 배순

Sunday Worship Service

2025. 1. 12.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Invocation
 Presider

찬송 8장(통9장) 4절 다같이(일어서서)
 Hymn Hymn No. 8 v. 4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일어서서)
 Confession The Apostles' Creed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1부: 95장, 2·3·4부: 10장, 주일저녁: 309장 다같이
 Hymn (통82장) (통34장) (통409장) All Together

기도 기도자
 Prayer Prayer

성경봉독 사회자
 Scripture Reading Presider

1부 행(Acts) 1:12~14

2·3·4부 사(Isa.) 41:14~16

5부 대학청년 단(Dan.) 9:19

주일저녁 겐(Ezek.) 36:26~28

찬양 찬양대
 Anthem Choir

설교 설교자
 Sermon Preacher

1부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승호 목사
 Getting Started Is Important Rev. Seungho Yang

2·3·4부 두려워하지 말라 이영훈 목사
 Do Not Be Afraid Rev. Younghoon Lee

5부 대학청년 주여 삼창의 외침! 오수황 목사
 The Threefold Cry of "Lord!" Rev. Soohwang Oh

주일저녁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신의규 목사
 The God Who Restores Rev. Euikyoo Shin

기도와 결신 설교자
 Prayer & Altar-Call Preacher

헌금기도 기도자
 Offering Prayer

찬송 주기도문(635장) 다같이(일어서서)
 Hymn The Lord's Prayer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수요일예배순

Wednesday Worship Service

사 회 / 1부 10시 10분 김민철A 목사 2부 13시 40분 김성호B 목사 3부 19시 25분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부: 384장(통434장) 다같이

기도 1부: 김상영B 장로 2부: 유준호 장로

성경봉독 1부: 출(Exod.) 13:21, 3부: 마(Matt.) 9:26~30 사회자

찬양 1부: 베데스다 찬양대 2부: 시온 찬양대 3부: 호산나 찬양대

설교 우리 길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1부: 공희 목사

..... 2부: 이영훈 목사

..... 3부: 신동석 목사

열심과 열광

현금기도 1부: 전태균 안수집사 2부: 최종문 안수집사

금요성령대망회순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사 회 / 신효영 목사 20시

기도 김남중 장로

성경봉독 막(Mark) 10:17~22 사회자

찬양 갯세마네 찬양대

설교 부자청년은 왜 오해했을까요? 양승호 목사

토요일예배순

Saturday Worship Service

사 회 / 오애숙 목사 10시 15분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찬송 456장(통509장) 사회자

기도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빌(Phil.) 3:14 사회자

찬양 가브리엘 찬양대

설교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백근배 목사

현금기도 최천길 안수집사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주일 1부	베 다 니	강 내 우	저 천국 음악소리	수 요 1부	베데스다	김 호 식	거룩한 성
주일 2부	베들레헬	윤 의 중	시편 150편	수 요 2부	시 온	조 현 호	한 믿음 가지고
주일 3부	예루살렘	여 자 경	송축해 내 영혼	수 요 3부	호 산 나	윤 규 섭	성령이여 오소서
주일 4부	나 사 랫	이 중 진	축복	금요성령대망회	갯세마네	송 성 철	민음의 축복
5부 대학청년	임마누엘	이 수 범	왕께 찬양합니다	토 요 예 배	가브리엘	이 용 중	축복
주일저녁	에벤에셀	김 영 준	예수를 믿는 마음				

오늘의 말씀

“버려지 같은 너 아픔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나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이하출임) (사 41:14~16)

사 회

- 1부 06:40 김정대 목사
- 2부 08:40 이성광 목사
- 3부 10:40 김형건 목사
- 4부 12:35 변원중 목사
- 5부 대학청년 14:35 이지영B 목사
- 주일저녁 16:40 김성준B 목사

대표기도

- 1부 이 우 돈 장로
- 2부 조 건 열 장로
- 3부 김 달 위 장로
- 4부 김 성 석 장로
- 5부 양 복 현 장로
- 대학청년 주일저녁 장 일 봉 장로

현금기도

- 1부 정원술 안수집사
- 2부 배성기 안수집사
- 3부 김광주 안수집사
- 4부 오준환 안수집사
- 5부 서기쁨 성 도
- 대학청년 주일저녁 김근택 안수집사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사(Isa.) 41:14~16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마치 폭풍 속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두워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1. 무가치하고 연약한 인생 (The fragility and insignificance of human life)

이사야서를 보면 유다 백성을 향해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사 41:14). ‘버리지’는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지렁이’로 번역되었는데 힘없고 무가치한 벌레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지렁이처럼 연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사 43:1). 그리스도 밖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God who helps us)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며 염려, 근심, 걱정애 눌려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사 41:14b).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God who builds us up as people of power)

지렁이와도 같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주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연약하기 그지없던 우리를 곡식을 탈곡하는 새 타작기계와 같이 만드셔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강한 용사로 세우십니다(사 41:15).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큰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오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나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 국가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

일시: 매주 토요일 새벽 5시 45분 / 장소: 대성전 / 설교: 이영훈 목사

◆ 신년축복 열두광주리 새벽기도회

일시: 1월 6일(월)~18일(토) 새벽 4시 45분(단, 토요일은 5시 45분) / 장소: 대성전 / 설교: 이영훈 목사

예 배

1. 여성교회 정기월례회

일시: 1월 19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베들레헬성전 / 설교: 백근배 목사

2. 교무국 전도새가족부 2024년 새생명 감사예배

일시: 1월 26일(주일) 주일 2부~4부 예배 / 장소: 대성전

3. 남선교회 신년축복성회

일시: 1월 26일(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바울성전 / 설교: 이영훈 목사

모 집

1. 교무국 찬양특별교구 호산나 찬양대(수요3부) 대원 모집-문의 ☎ 02-6181-6702, 6704

자격: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물성령 침례 받은 성도 / 모집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2. 한세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원 전기 2차 신(편)입생 모집-문의 ☎ 031-450-5189

접수: 1월 10일(금)~14일(화) / 면접 및 실기고사: 1월 24일(금)~25일(토) / 홈페이지-http://graduate.hansei.ac.kr

3. 영산신학연구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문의 ☎ 02-6181-7715~6

모집과정: 신학 연구 과정·목회 연구 과정·평신도 지도자 과정 / 모집기간: 2월 7일(금)까지

안 내

1.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헬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전국교육자선교회 제87회 학부모 동계수련회

일시: 1월 13일(월)~14일(화)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 장소: 바울성전

3. 교무국 통일대교구 1월 통일연합비전기도회

일시: 1월 19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세계선교센터 102호 / 강사: 양승호 목사

4. 1월 15일 수요일 2부 예배는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종 판매행위(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권유 및 금전거래를 금지합니다.

☐ 다음 주간(1/19, 1/22, 1/24, 1/25) 대표기도(장로)

주일예배(1/19)						수요일예배(1/22)	1부:이주역 2부:지명호
1부	2부	3부	4부	5부 대학청년	주일저녁	금요성령대망회(1/24)	양진오
김한수B	윤찬여	김홍춘	최창훈	조영담	김형진	토요일예배(1/25)	정승윤

☐ 교회 대표전화(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다시 돌아온 호의와 친절

폭우가 쏟아지는 밤, 지친 몸을 이끌고 한 노부부가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예약 없이 찾아온 그들에게 빈방은 없었습니다. 당황한 노부부에게 호텔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비록 누추하지만 제 방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제 방에서 묵으시겠습니까?”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한 노부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부부가 감사한 마음으로 숙박비를 내려 했지만, 직원은 정식 객실이 아니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노부부는 언젠가 꼭 보답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2년 후, 노부부는 그 호텔 직원을 뉴욕으로 초청했습니다. 웅장한 호텔 앞에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저희가 지은 것입니다. 당신이 이곳의 경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그제야 직원은 노부부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백만장자 월도프 아스토 부부였고, 그곳은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던 직원의 이름은 조지 볼터였습니다. 그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지배인이 되어 룸서비스를 창안하는 등 혁신적인 경영으로 ‘호텔왕’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타인을 친절과 배려로 대할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보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록 물질적인 보상이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